

밤나무 주요자생지인 경기도 광주, 강원도 홍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흑별에 강하고 과신행질이 우수한 199본의 나무들을 선발하여 유전자은행(Gene Bank)이라 불리는 품종보존원을 조성하였다.

- ◆ 어미나木の 우수한 형질을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는 무성번식법에 의해 조성된 품종보존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한 시험단계를 거쳐 병해충에 강하고 독특한 단맛을 지닌 옥광, 산대 등의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게 되었다.
- ◆ 선발된 품종들은 일본을 과시하는데 등 외국 품종들 보다 특유한 단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신행질이 우수하여 세계의 시장에서 “한국밤의 우수성”을

과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.

- ◆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연간 밤 총생산량은 45만 톤으로 중국23%, 한국19%, 이탈리아가 16%의 순위로 점유하고 있다. 이와 같이 세계 2위의 주요 밤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연간 밤 총생산량은 85,500톤이며, 이 중 16%정도를 수출하여 매년 85,017천 \$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.
- ◆ 아울러 임업연구원의 밤나무 유전자은행에는 우리나라 토종밤 199계통을 포함하여 일본, 중국, 이탈리아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밤 생산국으로부터 126종을 도입, 총 325품종을 보존하고 있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최대규모의 품종보존원이다.

## 수액을 채취해도 고로쇠나무 이상 없다

- 수액채취 후 나무의 상처를 완전 치유할 수 있는 “D·B 도포제” 개발 -

- ◆ 산림청 임업연구원(원장 서승진)에서는 옛날부터 살아있는 나무에서 얻어지는 천연 이온음료수인 고로쇠나무 수액이 국민들의 선호에 따라 농·산촌의 중요한 소득자원으로 자리 잡고있으나 수액채취 후, 일부 나무가 고사하거나 가지가 마

른다는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하고 나섰다.

- ◆ 고로쇠나무 수액을 채취한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액채취 자원의 지속적인 보존 및 소득자원으로 계속 관리할 목적으로 2000년

부터 연구에 착수하여 수액을 채취한 후 천공부위를 치유할 수 있는 유합촉진제 “D·B(디오판+대나무숯)도포제”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.

- ◆ 고로쇠나무 수액채취는 천공법에 의하고 있으며 수액채취 후, 천공부위가 쉽게 아물지 않음으로써 나무자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제공한다. 이를 조기에 치유하여 봉합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기 위하여 스킨로폼, 죽초액 등 여러 가지 유합촉진 재료를 만들어 시험한 결과,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“D·B 도포제”를 개발하게 되었다.

◆ 임업연구원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“D·B 도포제”는 수액채취한 고로쇠나무의 상처부위에 바르면 4개월 만에 완전 치유될 수 있으며 처리 방법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. 또한, 나무의 성장과 유합에 도움을 주는 자연 친화적인 도포제이다.

- ◆ 앞으로 유합촉진제 “D·B 도포제”의 대량생산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전국의 수액채취업자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금후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후 야기되는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## 산림항공지소(안동·강릉) 개청 및 초대형헬기 본격운영

산림청(廳長 金範鎰)은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를 위하여 추진한 산림항공관리소 지방격납고가 준공됨에 따라 2.21(목)은 안동지소, 2.22(금)은 강릉지소 개청식을 가졌으며, 이와 함께 초대형헬기를 강릉격납고에 배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- 산림청은 2.21(목)과 2.22(금) 산림항공관리소 안동지소 및 강릉지소 개청식을 가졌으며, 전국 7개소의

지방격납고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일부지역을(충청권) 제외하고는 산불발생시 헬기 이륙 후 30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게 되었다.

- 아울러 2.22(금),14:00 강릉지소 개청과 함께 신규도입한 초대형헬기(S-64E) 취항식 및 시범비행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.